

4살 男 5개월째 의식불명... 엄마는 울고 있다

2016 사건 그 후

유치원생 폭염 버스 방치

지난 7월29일 '살인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가까이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유치원생 A(4)군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사고는 당시 통학버스 기사(51)와 인솔교사(여·28), 주임교사(여·34)가 1분만 시간을 내 통학버스 안에 누가 남아 있는지 확인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A군 등을 태운 통학버스는 같은 날 오전 9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유치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통학버스 기사와 인솔교사는 차에서 내린 아이들의 수를 점검하지도, 버스 안을 살피지도 않았다. 주임교사도 당일 출석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 매뉴얼에

뇌병변 어린이 사망·스쿨존 교통사고 등 을 유사사례 빈번

광주교육청 통학버스 개선 추진...어른들 안전의식 고취 필요

수색된 '운행 종료' 차량 안 뒷좌석까지 반드시 확인, 어린이 혼자 통학버스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결국 A군은 하월을 준비하던 통학버스 기사에게 같은 날 오후 4시30분께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당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5.3도를 기록했다.

A군의 부모는 아직도 아이가 깨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업무상 과실지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솔교사와 통학버스 기사에게는 각각 금고 8개월과 금고 6개월이 선고됐고, 불구속 기소된 주임교사에게는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어른이 좀 더 주

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동 안전관리 소홀과 유치원 운영 부적절 등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적발돼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사고 직후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3월 개학 시기를 맞춰 통학버스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또 광주일보의 지적(2016년 8월1일자 6면)에 따라 통학버스 내에 안전벨트(비상벨)와 동작감지센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행 종료 후 차량 내 학생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도록 했다. 8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비슷한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7월1일에는 북구 우산동 한 어린이 집에 도착한 통학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던 5세 어린이가 2시간 가량 갇혀 있다가

구조됐다. 이에 앞서 4월에는 북구 한 특수학교에 도착한 통학버스에서 뇌병변장애 1급인 7세 어린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70여일만에 숨졌다. 지난 9월 광산구에서는 스쿨존 내 무분별하게 불법주정차 된 차량들 때문에 운전기사가 미쳐 6세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어른'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이었다.

A군의 어머니(37)는 "시교육청에서 동승 보호자에게까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당연히 실행되고 있어야 할 사항"이라며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당장 보여주기 식으로 실행된 것 같아 1년, 2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행될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정인기자 kki@kwangju.co.kr

까탈스럽다·결판지다

내년부터 표준어 인정

"그 애 성격이 꽤 까탈스럽네.", "나도 잠 주책이군." "그 술상 한번 결판지네." "까탈스럽다"와 "주책이다"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지만 사실은 표준어가 아니다. 어법에 맞는 표현은 '까다롭다'와 '주책없다'이다.

국립국어원은 그러나 이처럼 국민이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나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어휘 6개를 표준어 또는 표준형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로 표준어로 인정된 어휘는 '까탈스럽다', '결판지다', '겉술음', '실뭉치' 등 4개다. 이들 어휘는 각각 '까다롭다', '거방지다', '겉술음', '실뭉치'이라는 표준어가 있었다. 하지만 기존 표준어와는 뜻이나 어감이 달라 이번에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받았다.

예컨대 '까다롭다'가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럽게 까탈이 많다'는 뜻이라면 '까탈스럽다'는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러워 맞춰 주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로 의미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결판지다'는 몸집이 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거방지다'와 다른 '매우 푸지다'라는 뜻의 표준어로 자리 잡았고, '겉술음'은 눈물 없이 우는 울음, 억지 울음인 '건술음'과 달리 드러내놓고 우는 울음을 뜻할 때 사용되는 표준어로 인정됐다.

새롭게 추가된 표준어는 내년 1월 1일자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 반영된다.

/연합뉴스



기내 난동 이제 안봐준다 27일 오전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승무원들이 테이저건과 타이랩, 포승줄 등을 이용한 기내 난동승객 제압술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부 무단 수정' 여고 교장 뒤늦게 공개 사과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 수정해 파문이 일었던 광주 S여고 교장이 27일 학생들에게 뒤늦게 공개 사과했다. 앞서 26일 이 학교 한 학생은 3학년 교실에 배포된 유인물을 통해 '노력을 좌절시키는 학교·교사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 교장은 이날 오전 학교 방송을 통해 "교장으로서 먼저 여러분에게 미안하다"는 말씀드린다.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추억이 되어야 할 고교시절이 학교의 몇몇 잃지 못한 방식과 행동으로 인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기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제 마음이 여러분들처럼 너무 아프고 아려온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이번 수시 입시 결과에 대해 작년과 비교해보면 아무리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해도 결과가 좋지 못함에 대해 어떤 변명의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거듭 사과했다.

교장은 "입시지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나 좀 더 다가가지 못하고 열심히 지도하지 못해 놓친 학생들이 있지 않으나 모르겠다"며 "이제 남은 정시에서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 10여 명을 선발해 대입 수시 전형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학생부를 임의로 수정하고 교육력 제고 사업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교장 등 1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한편, 이 학교의 한 학생은 지난 26일 A 41장 분량의 유인물을 통해 학교의 무성의한 대응과 특정 학생에 대한 편파적인 진학 지도를 비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인물 배포와 관련 S여고를 방문, 진상파악에 나섰다.

/박정욱기자 jwpark@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0 해질 17:28 달돋이 06:22 달지름 16:52

건강관리 유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체감온도는 낮아져 춥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4/5 보성 맑음 -6/5
목포 흐린뒤맑음 -3/5 순천 맑음 -4/7
여수 맑음 -2/6 영광 맑음 -6/4
나주 맑음 -6/5 진도 흐린뒤맑음 -2/5
완도 맑음 -1/6 전주 맑음 -5/4
구례 맑음 -7/5 군산 맑음 -6/3
강진 맑음 -4/6 남원 맑음 -8/3
해남 맑음 -4/5 옥산도 흐린뒤맑음 1/4
장성 맑음 -6/4

◇바다 날씨
서해 앞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0.5~1.5
남해 앞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1.0~2.5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2.0~3.0 북서~북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1.0~2.5

◇생활지수
매우높음
뇌졸중
매우높음
감기
관심
체감온도

◇물때
간조 06:37 만조 01:07
19:20 13:57
여수 02:09 08:52
14:55 20:42

◇주간 날씨
29(목) -2/5 30(금) -3/6 31(토) -1/8 1/1(일) -1/8 2(월) -1/8 3(화) -1/8 4(수) 0/8

찬바람 씩씩... 오늘 을 겨울 가장 추워

28일 광주·전남지역은 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8일 광주·전남지역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곡성과 구례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고, 장성·화순·보성 영하 6도, 담양·고흥 영하 5도, 광주 영하 4도 등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낮 최고기온도 4~7도 수준에 머물겠다.

기상청은 29일에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부터는 평년(최저 영하 4도~0도, 최고 6~8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은재기자 e6j2612@

법원 "불륜 증거잡으려 한 도청 위법"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배우자의 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A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B씨가 낸 맞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 A씨는 B씨에게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996년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올해 1~2월 2차례 남편의 차에 녹음 장치를 부착했다.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결과, A씨의 남편은 B씨와 차 안에서 서로 애정을 부르거나 성관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불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혼인관계에 당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B씨 측은 "A씨 부부는 이미 2013년 3월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며 "A씨가 2차례 몰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고, B씨의 집을 찾아와 남편과의 관계를 추궁하는 등 (A씨 남편과 B씨)의 부부 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맞섰다.

한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2013년 이미 A씨 부부의 관계가 파탄됐다"는 B씨 측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연합뉴스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1. 무안-규슈/오사카 직항 전세기

★초특가 실속규슈여행! 499,000원
(단 3회! 12/19, 12/22, 12/25)

★고품질 북큐슈여행! 699,000원
(단 3회! 12/19, 12/25, 12/28)

규슈 출발일: 12.16~2.26/3박4일

산악회를 위한 규슈올레길! 548,000~
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838,000~
기타큐슈 나가사키/우레시노 838,000~

오사카 출발일: 1.30, 2.2/3박4일

오사카/나라/교토/고베 1,168,000~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1,16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298,000~

오사카 설연휴: 1.27/3박4일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1,38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458,000~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룩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초특가 12/28, 1/9★

[육로]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949,000~
출발일: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1,498,000~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공통포함사항: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박,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팀
※공통불포함사항: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권, 율령, 음식, 불포함)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699,000~
[풍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7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899,000~
[풍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999,000~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A320-200 / 좌석: 150석

★한별제품★
한별에비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편도 50,000원부터~
무안↔오사카: 편도 98,000원부터~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험 가입(해외여행:1억 국내여행:5천만원) 관광진흥법기법/공공 및 부부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차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박만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지 기업업체 ●역사적 계약사(해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경비보험(기타/가이드/보험사료,선박관료,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용에 따라 다름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